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임 준 석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지도교수 김 찬 형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임 준 석

임준석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년 6월 일

감사의 글

제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많은 관심과 격려로 한결같이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김찬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제가 강박장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논문 쓰는 법을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김세주 교수님, 그리고 의학 교육을 책임지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느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전우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가족들, 의국 동료, 의대 선후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 씀

< 차례 >

그림 및 표 차례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연구 대상 및 방법	8
1. 연구 대상	8
2. 연구 방법	8
가. OCI-R의 한국어판 제작	8
나. 비교 측정 도구	10
(1) 한국어판 Maudsley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10
(2) 한국어판 Beck's Depression Inventory	10
(3) 한국어판 Beck's Anxiety Inventory	11
다. 자료 분석	11
III. 결과	12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12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12
3. 하부 척도의 성별차이.....	13
4. 검사-재검사 신뢰도	14
5. 준거 타당도(한국어판 MOCI와의 비교).....	15
6. 변별 타당도(한국어판 BDI, 한국어판 BAI와의 비교)·	15
IV. 고찰	16
V. 결론	19
VI. 참고문헌	20
부록(OCI-R, OCI-R-K).....	24
영문요약	26

표 차례

표 1. Correlations among OCI-R-K subscales	13
표 2. Means, standard deviations for the OCI-R-K total scale and subscales, for the whole sample and by gender.....	14
표 3. Convergent validity of the OCI-R-K	15
표 4. Divergent validity of the OCI-R-K.....	16

국문 요약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목적: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OCI-R)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들 모두에게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MOC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Anxiety Inventory(BDI) 평가를 병행하였다.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0으로 우수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1로 양호하였다. MOCI와의 준거 타당도는 0.60으로 양호한 상관성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비임상군에서의 한국어판 OCI-R(OCI-R-K)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아 국내의 강박장애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한국어판 OCI-R),
신뢰도, 타당도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지도교수 김 찬 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임 준 석

I. 서 론

강박장애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강박적 사고와 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신과적 장애다.¹ 강박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약 2.5%², 국내에서 약 0.4~2.3%^{3,4}로 보고될 정도로 일반 인구에서 비교적 유병률이 높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그들의 증상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남에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정서적 생활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인지적인 기능 등 직업수행에 심한 장애를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는 않지만 강박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강박장애 환자들이 다른 질환에 비해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⁵ 강박장애 환자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강박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 강박 장애의 평가 방법에는 임상적 면담, 행동관찰(타인에 의한 관찰, 혹은 자기 관찰), 임상가의 면담에 의한 평정척도, 자기보고 설문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기보고 설문지가 경제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개발되어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강박장애에 관한 예일-브라운 강박장애척도 증상목록(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Symptom Checklist, 이하 Y-BOCS-SC)⁶과 같은 각각의 자세한 증상에 대한 설문지도 있지만, 문항들이 강박증상의 종류에만 관련이 있으므로 강박장애 환자들의 미묘한 성격 특성, 생각, 행동 양식, 습관 등과 같은 점들을 간과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강박장애 환자들의 대부분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증상을 포함하는 설문지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어 온 대표적인 설문지로 모즐리 강박증상목록(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이하 MOCI)⁷과 파두아 강박증상목록(Padua Inventory, 이하 PI)⁸이 있다.

그러나 MOCI는 내적 일관성이나 요인간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고, 보관(hoarding), 의식적 행동(rituals) 등 세척이나 확인과 관련된 증상이외의 증상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9,10} 특히 치료 과정에 의한 증상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드러났는데, 이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구조적 특성과, 몇 가지 항목은 과거의 내용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PI는 몇 가지 항목에서 강박사고 보다는 단순한 걱정을 측정한다는 지적과, 중립화(neutralizing)이나 보관(hoarding)과 같은 종류의 증상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났다.¹¹

강박증상목록(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이하 OCI)¹²은 1998년 Foa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확인, 세척, 강박, 중립화, 정돈, 보관, 의심의 7개의 군으로 된 42개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상의 빈도와 증상과 연관된 불편감을 0~4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평균 작성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강박장애를 조기 선별하고, 증상을 구분해낼 뿐만 아니라 강박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CI는 기존의 MOCI에 비해 보다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다양한 강박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OCI는 임상군과¹² 비임상군^{13,14} 모두에서 훌륭한 정신측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증상의 빈도와 증상과 연관된 불편함을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환자들이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더 쉽고 간결한 형태인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이하 OCI-R)¹⁵이 개발되었다.

OCI-R은 1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점수와, 여섯 가지 하부 척도(세척, 확인, 정돈, 강박, 보관, 의심)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들은 불편감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평가된다. 하부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 세척(예를 들어, “나는 어떤 물건을 닦은 사람들이나 특정 사람들이 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물건을 만지기 어렵다.”), 확인(예를 들어, 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확인을 하는 편이다.”), 정돈(예를 들어, 나는 물건들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 난다.”), 강박(예를 들어, “나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정신적 중립화(예를 들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숫자를 세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OCI-R은 성인 강박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호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였다¹⁵. Foa 등은 각 하부 척도의 신뢰도를 0.82 에서 0.90까지, 총점을 0.81로 보고했다. 강박장애 환자 군에서 2주 간격으로 측정된 하부 척도들의 시행-재시행 신뢰도는 양호하였다($r = 0.74-0.91$). 대학생 군에서 총점의 α 는 0.88로, 하부 척도의 α 는 보관($\alpha = 0.68$)과 정신적 중립화($\alpha = 0.61$)를 제외하고 0.76에서 0.84까지 측정되었다¹⁶. 한달 간격으로 측정된 시행-재시행 신뢰도는 보통에서 양호함 사이로 측정되었다. OCI-

R은 또한 다음과 같은 준거 타당도를 보였다.^{15,16} : Y-BOCS ($r = 0.53$), MOCI ($r = 0.85$), PI ($r = 0.75$). 변별 타당도는 해밀톤 우울척도(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이하 HAMD, $r = 0.58$)와 벡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이하BDI, $r = 0.39$)를 이용하였으며 적절하였다.^{15,16} Foa등은 강박장애 환자들을 타 불안장애 환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최적의 커트오프 점수를 21점으로 산출하였다.¹⁵ (민감도: 65.6%, 특이도: 63.9%)

이와 같이 OCI-R은 내적 일관성,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보고되었다.¹⁵ 또한 보관, 정돈 하부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강박장애 환자와 다른 불안장애 환자를 감별하는 능력도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또한, 최근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OCI-R의 정신측정적 속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Foa 등에 의해 만들어진 6개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고, 총점과 하부 척도 점수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 타당도가 양호하였다.¹⁶ 따라서 OCI-R은 환자 군과 일반인 군 모두에서 강박증상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모든 정신병리척도는 특정 언어 및 문화권에 속한 인구군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발국가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지면 그 평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집단에 척도를 적용하려면, 번역 과정을 통해 그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강박장애 환자들에게 단순히 OCI-

R을 번안하여 사용하기 전에 한국어판 OCI-R을 제작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판 OCI-R을 제작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5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중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50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34 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신체적 질환 및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 설문지 일부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들 총 6 명을 제외하여, 수집된 자료 중 남학생 143 명, 여학생 85 명, 총 228 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방법

가. OCI-R의 한국어판 제작

원저자의 Foa 등¹⁴이 2002년에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OCI-R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먼저 정신과 전공의 2인이 각자 초벌 번역하였고, 이것을 함께 검토, 수정하여 1개의 초벌 번역본을 만들었다. 초벌 번역본은 다시 영어에 능통한 정신과 전문의 1인에 의해 역 번역 되었으며 영어에 능통한 다른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원본과 비교 감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자의 자문을 구하여 한국어판 OCI-R을 완성하였다.

1번 항목 ‘I have saved up so many things that they get in the way.’ 초벌 번역에서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물건들을 모아서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이다.’라는 문장이 마치 ‘물건’이 아닌 ‘나’가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은 너무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이다.’로 수정하였다.

11번 항목 ‘I sometimes have to wash or clean myself simply because I feel contaminated.’ 초벌 번역에서 ‘나는 단지 내가 오염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몸을 씻어야 할 때가 있다.’의 경우 ‘contamination’ 문맥상 ‘오염’보다는 ‘더러워졌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않아 ‘나는 단지 내가 더러워졌다’는 생각 때문에 몸을 씻어야 할 때가 있다.’로 수정하였다.

18번 항목 ‘I frequently get nasty thoughts and have difficulty in getting rid of them.’ 초벌 번역에서 ‘나는 자주 불결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의 경우 ‘nasty’가 ‘더러운, 추잡한, 불쾌한’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오염’이 아닌 ‘강박’ 하부 척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의 뜻을 살리기 위해 ‘음란한’으로 번역하여 ‘나는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로 수정하였다. 이상의 항목들을 수정하여 최종판을 완성하였다.

나. 비교 측정 도구

일본의 표준화 연구를 참고하여 강박 증상 및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척도로 이미 국내어로 표준화된 한국어판 Maudsley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17,18} 를 선택하였으며, 관련성이 적은 척도로 한국어판 Beck’s Depression Inventory¹⁹ 및 한국어판 Beck’s Anxiety Inventory 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1) 한국어판 Maudsley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한국어판 MOCI^{17,18}

Maudsley 강박 행동 질문지는 Hudson 과 Rachman 에 의해 주요 강박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대경¹⁷ 이 번안하고 민병배 및 원호택¹⁸ 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어판 MOCI 를 사용하였다.

(2) 한국어판 Beck’s Depression Inventory: 한국어판 BDI¹⁹

Beck 등이 개발한 우울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0-3 점 척도로, 총점은 0-63 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¹⁹ 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어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한국어판 Beck's Anxiety Inventory: 한국어판 BAI²⁰

Beck 등이 개발한 불안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이 척도는 불안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0-3 점 척도로, 총점은 0-63 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²⁰ 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 자료 분석

한국어판 OCI-R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Pearson 상관 분석법으로 검증하였다. 준거타당도는 Pearson 상관분석법을 이용하여 OCI-R-K 의 하부 척도와 MOCI 의 하부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알아보았다. 사회 인구학적 분포의 분석 및 성별차이는 independent t-test 를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1 로 처리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version 12.0)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228 명으로 성비는 남자 143 명 (62.3%), 여자 85 명 (37.3%)이었다. 평균 연령은 22.5 ± 1.9 세였다. 평균 교육 년수는 15.1 ± 1.4 년이었다. 대상자 들의 BDI 및 BAI 총점은 각각 5.8 ± 5.6 , 6.0 ± 6.6 으로 병적인 우울 및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OCI-R-K 총점은 16.8 ± 11.6 점 이었으며, MOCI 총점의 평균은 5.4 ± 4.4 점 이었다.

2. 내적 일관성 신뢰도

228 명을 대상으로 Cronbach's α 로 살펴본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0 이었다.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Cohen's criteria(1988)가 사용되었다. 상관계수가 >0.50 일 경우 “큼”, 0.30~0.40 을 “중간”, 0.10~0.29 를 “적음”으로 정의하는데, 각각의 하부 척도와 OCI-R-K 의 전체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컸으며($\alpha = 0.73 \sim 0.84$) 특히 확인과 중립화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하부 척도 사이의 관계도 모두 0.35 를 넘었다(0.35~0.66). (표 1)

Table 1. Correlations among OCI-R-K subscales

Subscales	Obsessing	Hoarding	Ordering	Checking	Neutralizing	Total
Washing	0.46*	0.41*	0.54*	0.52*	0.61*	0.76*
Obsessing		0.54*	0.35*	0.56*	0.51*	0.73*
Hoarding			0.40*	0.56*	0.51*	0.74*
Ordering				0.57*	0.60*	0.75*
Checking					0.66*	0.83*
Neutralizing						0.84*

OCI-R-K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Pearson's correlations

* $p < 0.01$

3. 하부 척도의 성별차이

남자와 여자의 OCI-R-K 의 전체 점수와 하부 척도 점수는 (표 3)과 같다. OCI-R-K 의 성별간 전체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부 척도 중 “6. 나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12. 나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18. 나는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강박(obsessing) 영역의 평균 점수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이 세가지 항목 평균점수는, 6 번 항목의 경우 남자에서 0.9 ± 1.1 점, 여자에서 0.7 ± 1.0 점, 12 번 항목의 경우

남자에서 1.1 ± 1.1 점, 여자에서 1.0 ± 1.0 점으로 두 항목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8 번 항목의 경우 남자에서 1.0 ± 1.0 점, 여자에서 0.3 ± 0.6 점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4 배 가량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for the OCI-R-K total scale and subscales, for the whole sample and by gender

OCI-R-K	Males		Females		Total		<i>p</i>
	Mean	S.D. ³	Mean	S.D.	Mean	S.D.	
Total	17.0	11.3	16.4	12.1	16.8	11.6	0.72
Washing	1.7	2.0	2.0	2.7	1.8	2.2	0.34
Obsessing	3.1	2.6	2.0	2.0	2.7	2.4	0.00
Hoarding	3.3	2.5	3.7	3.0	3.4	2.7	0.20
Ordering	3.7	2.9	3.6	2.8	3.6	2.8	0.71
Checking	2.9	2.5	2.7	2.6	2.8	2.5	0.52
Neutralizing	2.3	2.2	2.4	2.8	2.3	2.5	0.71

OCI-R-K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S.D :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4. 검사-재검사 신뢰도

122 명(남자 72 명, 여자 50 명)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는 10 일 간격을 두고 시행되었다. 전체점수의 신뢰도는 0.81 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OCI-R-K의 하부 척도에서는 이보다 낮았지만 모두 0.62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5. 준거 타당도(한국어판 MOCI 와의 비교)

준거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OCI-R-K의 전체 점수 및 세부 척도 점수를 한국어판 MOCI 점수와 비교하였다.(표3) OCI-R-K 전체 점수와 한국어판 MOCI 전체 점수와의 상관성은 0.60이었다. 특히 OCI-R-K에서의 checking과 한국어판 MOCI의 checking 사이의 상관성은 0.65, OCI-R-K의 washing과 한국어판 MOCI에서의 cleaning의 상관성은 0.57이었다.

Table 3. Convergent validity of the OCI-R-K

OCI-R-K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Korean				
	Doubting	Checking	Slowness	Cleaning	Total
Total	0.40*	0.52*	0.42*	0.48*	0.60*
Washing	0.25*	0.35*	0.35*	0.57*	0.49*
Obsessing	0.26*	0.28*	0.35*	0.27*	0.36*
Hoarding	0.30*	0.30*	0.25*	0.32*	0.39*
Ordering	0.31*	0.38*	0.34*	0.34*	0.45*
Checking	0.43*	0.65*	0.36*	0.39*	0.84*
Neutralizing	0.30*	0.52*	0.42*	0.48*	0.82*

OCI-R-K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Pearson's correlations

* $p < 0.01$

6. 변별 타당도(한국어판 BDI, 한국어판 BAI 와의 비교)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OCI-R-K의 전체 점수 및 하부 척도 점수를

한국어판 BDI 및 한국어판 BAI 점수와 비교하였다.(표4) OCI-R-K 전체 점수와 한국어판 BDI의 상관도는 0.40, 한국어판 BAI와의 상관도는 0.43으로 우울 및 불안 수준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OCI-R-K와 한국어판 BDI 및 한국어판 BAI의 하부 척도 점수는 0.13에서 0.55 사이로 측정되었다.

Table 4. Divergent validity of the OCI-R-K

OCI-R-K	BDI	BAI
Total	0.40**	0.43**
Washing	0.22**	0.27**
Obsessing	0.59**	0.55**
Hoarding	0.37**	0.37**
Ordering	0.13*	0.17**
Checking	0.33**	0.37**
Neutralizing	0.22**	0.26**

OCI-R-K :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Pearson's correlations

* P<0.1, ** P<0.01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강박증상 자기 보고식 척도의 하나인 단축형 강박증상 목록(OCI-R)의 한국어판 척도인 OCI-R-K를 제작하여,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OCI-R-K 전체 점수의 평균은 16.8(S.D = 11.6; range = 1-15)로, Foa 등¹⁵이 2002년에 유사한 군으로 시행한 결과인 18.8, Hajcak 등¹⁶이 2004년에 시행한 결과인 18.9보다 약간 낮았고, Miquel 등²¹이 2005년 스페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인 15.6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유사하였다. 한편, 남녀간에 OCI-R-K 전체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였다.^{15,16}

OCI-R-K의 Cronbach alpha=0.90으로 우수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였는데, 이는 Hajcak 등¹⁶이 2004년에 시행한 결과인 0.88, Miquel 등²¹이 2005년에 시행한 결과인 0.86보다 높았다.

OCI-R-K의 각 하부 척도 중 강박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강박 영역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 중 18번 항목인 “나는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에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 증상이 남자 강박장애 환자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고^{22,23}, 보관 증상이 남자 강박장애 환자에서 여자에 비해 두 배 더 많다는 보고²⁴도 있었지만, 남녀간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²⁵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15,16}에서 OCI-R-K 하부 척도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강박’ 영역에서 남자가 높게 측정된 것은 성적인 표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생각된다. 즉, 18번 항목에서 ‘음란한’이라는 단어로 인해 여학생들이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불결한’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점수에서 0.81이며, 하부 척도에서도 0.62~0.78로 측정되었다. 이는 Hajacak 등¹⁶이 2004년 시행한, 이보다 짧은 기간인 일주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치인 0.70 및 Miquel 등²¹이 2005년에 시행한 결과인 0.67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이다.

이론적으로 어떤 척도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평가하는 다른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OCI와의 준거 타당도에 있어서도 전체 점수 사이의 상관도가 0.60로, Hajacak 등¹⁶이 2004년에 측정한 준거 타당도인 0.56/0.65와 유사하였다.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한 한국어판 BDI, 한국어판 BAI에서 OCI-R-K의 상관도가 각각 0.40, 0.43이었으며, 이는 Hajacak 등¹⁶이 2004년에 보고한 BDI와의 변별타당도인 0.39 및 Miquel 등²¹이 2005년에 보고한 BDI와의 변별타당도인 0.31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군이 일반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 대상군이 의과대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고, 나이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연령, 학력이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에 강박장애 환자 및 타 불안장애 및 기분장애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강박장애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강박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실제로 증상의 종류와 심각도를 잘 평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므로,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선별 검사에서 사용 가능성 유무, 강박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점수 산출, 치료 반응에 대한 민감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불안장애 및 기분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본 척도가 강박장애 환자만의 독특한 증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판 강박증상목록(OCI-R-K)이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어 국내 강박장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나이, 성,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여러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된 한국어판 강박증상목록의 정신측정학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강박증상목록(OCI-R-K)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여러 임상적,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된 OCI-R-K 의 정신측정학적 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1994.
2. Karno M, Goldin JM, Sorenson SB, Burnam MA. The epidemiology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in five US communities. Arch Gen Psychiatry 1988;45:1094-9.
3. 이정균.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XIII)- 강박장애의 유병율. 신경정신의학 1994;33:5-17.
4. 이호영, 남궁기, 이만홍, 민성길, 김수영, 송동호 등. 강화도 정신과 역학연구(III)- 주요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 신경정신의학 1989;28:984-99.
5. Skoog G, Skoog I. A 40-year follow-up of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1999;56:121-7.
6. Goodman WK, Price LH, Rasmussen SA, Mazure C, Fleischmann RL, Hill CL et al. The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I. Development, use, and reliability. 1989 Nov;46(11):1006-11.
7. Ezio S, Giulio V. The Components of the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Questionnaire. Behav Res Ther 1985;23(6):659-62.
8. Sanavio E. Obsessions and compulsions: the Padua Inventory. Behav Res Ther 1988;26(2):169-77.
9. Emmelkamp PM, Kraaijkamp HJ, van den Hout MA.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 Modif 1999;23:269-79.

10. Taylor S, Thordarson DS, Sochting. Handbook of assessment and treatment planning for psychological disorders. (NY) : Guilford;2002.
11. Burns GL, Keortge SG, Formea GM. and Sternberger LG. Revision of the Padua Inventory fo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tinctions between worry, obsessions, and compulsions. Behav Res Ther 1996;34:163-173.
12. Foa EB, Kozak MJ, Salkovskis PM, Coles ME, Amir N. The validation of a new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cale: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Psychol Assess 1998;10:206-14.
13. Simonds, LM, Thorpe SJ, Elliott, SA.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nonclinical student sample. Behav Cog Psychol 2000;28:153-9.
14. Wu KD, Watson D.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psychometric analysis in two non-clinical samples. J Anxiety Disord 2003;17:305-19.
15. Foa EB, Huppert JD, Leiberg S, Langner R, Kichic R, Hajcak G et al.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 Assess 2002;14:485-95.
16. Hajcak G, Huppert JD, Simons RF, Foa EB.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OCI-R in a college sample. Behav Res Ther 2004;42:115-23.
17. 조대경.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일 연구-Maudsley

- 강박행동목록 표준화.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1985;20:81-90.
18. 민명배, 원호택. 한국판 Maudsley 강박행동질문지와 Padua 강박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99;18:163-82.
 19. 이영호, 송종용.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91;10:93-118.
 20. 권석만. 불안장애의 정신병리 평가. 정신병리학 1997;6:37-51
 21. Miquel AF, Miquel TF, Xavier C, Oscar A, Rafael T, David MC.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anish version of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in a non-clinical sample. Anxiety Disord 2005;19:893-903.
 22. Lensi P, Cassano GB, Correddu G, Ravagli S, Kunovac JJ.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amilial-developmental history, symptomatology, comorbidity and course with special reference to gender-related differences. Br J Psychiatry 1996;169:101-7.
 23. Noshirvani H, Kavsikis Y, Marks I, Tsakiris F, Monterio WO. Gender-divergent aetiological factor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r J Psychiatry 1991;158:260-3.
 24. Samuels J, Bienvenu O, Riddle M, Cullen B, Grados M, Liang K et al. Hoarding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results from a case-control study. Behav Res Ther 2002;40:517-28.
 25. Mataix-Cols D, Marks I, Greist JH, Kobak KA, Baer L. Use of factor-analyzed

symptom dimensions to predict outcome with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and placebo in the treat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 J Psychiatry* 1999;156:1409-16.

부록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The following statements refer to experiences that many people have in their everyday lives. Circle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HOW MUCH** that experience has **DISTRESSED or BOTHERED you during the PAST MONTH**. The numbers refer to the following verbal labels:

	0	1	2	3	4
	Not at all	A little	Moderately	A lot	Extremely
1. I have saved up so many things that they get in the way.	0	1	2	3	4
2. I check things more often than necessary.	0	1	2	3	4
3. I get upset if objects are not arranged properly.	0	1	2	3	4
4. I feel compelled to count while I am doing things.	0	1	2	3	4
5. I find it difficult to touch an object when I know it has been touched by strangers or certain people.	0	1	2	3	4
6. I find it difficult to control my own thoughts.	0	1	2	3	4
7. I collect things I don't need.	0	1	2	3	4
8. I repeatedly check doors, windows, drawers, etc.	0	1	2	3	4
9. I get upset if others change the way I have arranged things.	0	1	2	3	4
10. I feel I have to repeat certain numbers.	0	1	2	3	4
11. I sometimes have to wash or clean myself simply because I feel contaminated.	0	1	2	3	4
12. I am upset by unpleasant thoughts that come into my mind against my will.	0	1	2	3	4
13. I avoid throwing things away because I am afraid I might need them later.	0	1	2	3	4
14. I repeatedly check gas and water taps and light switches after turning them off.	0	1	2	3	4
15. I need things to be arranged in a particular order.	0	1	2	3	4
16. I feel that there are good and bad numbers.	0	1	2	3	4
17. I wash my hands more often and longer than necessary	0	1	2	3	4
18. I frequently get nasty thoughts and have difficulty in getting rid of them.	0	1	2	3	4

Note. Copyright 2002 by Edna B. Foa.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OCI-R-K)

이 질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고, **지난 1달 동안** 다음의 경험들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힘들었는지**, 그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0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러한 편이다	중간이다	꽤 그러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그 동안 모든 너무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이다.	0	1	2	3	4
2. 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확인을 하는 편이다.	0	1	2	3	4
3. 나는 물건들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 난다.	0	1	2	3	4
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숫자를 세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0	1	2	3	4
5. 나는 어떤 물건을 낫선 사람들이나 특정 사람들이 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물건을 만지기 어렵다.	0	1	2	3	4
6. 나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7.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으는 습관이 있다.	0	1	2	3	4
8. 나는 습관적으로 문, 창문, 서랍 등을 확인한다.	0	1	2	3	4
9. 나는 내 방식대로 정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바꾸어 놓으면 화가 난다.	0	1	2	3	4
10. 나는 어떤 일을 특정 횟수만큼 반복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1	2	3	4
11. 나는 단지 내가 더러워졌다는 생각 때문에 몸을 씻어야 할 때가 있다.	0	1	2	3	4
12. 나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0	1	2	3	4
13. 나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한다.	0	1	2	3	4
14. 나는 가스밸브, 수도꼭지, 전등 스위치를 끄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0	1	2	3	4
15. 나는 물건들이 특정 순서로 정돈되어 있길 원한다.	0	1	2	3	4
16. 나는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17. 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주, 오래 손을 씻는 편이다.	0	1	2	3	4
18. 나는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0	1	2	3	4

Abstrac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in a non-clinical sample

Joon Suk L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 Hyung Kim)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ke and find o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Obsessive-Compulsive-Inventory-Revised(OCI-R-K) in a non-clinical sample.

Methods: A total of 228 subjects of college students were involved and had questionnaire which involved OCI-R-K. The study questionnaire consisted of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MOCI) which made it possible

to measure convergent validity. We analyzed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validity from the data.

Results: We had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Cronbach's alpha = 0.90), good test-retest reliability(0.81). Validity between MOCI was 0.60 which showed good convergent validity.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OCI-R showe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so it can be said that OCI-R-K is available in Korea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atients.

Key Words: Korean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OCI-R-K), reliability, validity